

#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행정 말썽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수개월 동안 수도검침을 허위로 해놓고도 누진요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농성동 일대 수도검침을 담당하는 서부사업소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수도검침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용량을 기재해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420여 가구에 실제 사용량보다 절반 가량 적은 요금을 부

## 수 개월간 허위검침 후 누진요금 부과 사실 확인 후 분할납부 고지서 재발송

과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해당 가구에 누진요금에 포함된 '폭탄 고지서'를 발송했다.

일부 가정에는 누진제로 10% 가량의 요금이 추가돼 평소 5만원~7만원이던 수도요금이 31만원 가량으

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들은 상수도본부가 허위검침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떠넘겼다고 항의했다.

서부사업소는 주민들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누진요금을 제외하고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A씨는 평소 무관심이 좋지 않아 언덕이 많은 쌍촌동·농성동 일대의 수도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계약직 신분 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퇴사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허위검침을 파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볼리비아서 버스 계곡 추락 최소 13명 사망

남미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악 지대에서 버스가 100m 아래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20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께 수도 리파스 남쪽에 있는 타리화 지구의 시에네 기야스에서 일어났다.

언론은 사망자 중에는 수크레 지구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던 아르헨티나 밴도사 여자축구팀의 일행 4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밴도사 축구팀은 20~25세 여성 12명으로 이뤄졌으며 친선경기를 벌일 예정이었다고 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볼리비아에서는 도로 시설 부실과 운전수칙 미준수, 차량 노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에도 볼리비아 남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버스 2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를 빚었다.

## 북아일랜드 차량 폭탄 용의자 4명 체포

북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20일(현지시간) 밤 런던데리 시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일랜드 통일을 요구하는 급진 민족주의 단체가 브렉시트를 앞두고 벌인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런던데리는 벨파스트에 이어 북아일랜드의 제2의 도시로, 1970년대 극심한 신교도 충돌 및 반영국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다. 특히 1972년 1월 30일 런던데리에서 영국군이 비무장 가톨릭 시위대에 발포해 14명이 사망한 사건은 일명 '피의 일요일(블러디 선데이)'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재무장화를 촉발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영국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경찰은 이날 20대 남성 두 명과 34세, 42세 남성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19일 밤 런던데리 시의 비숍 가(街)에 위치한 법원 건물 앞에서 폭탄을 설치한 차량을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폭발이 일어난 것은 오후 8시10분께다. 10분전 경찰은 폭탄이 설치됐다는 경고 전화를 받고 인근 호텔 투숙객 수백명과 건물에 머물고 있던 주민 15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폭탄이 설치됐던 차량은 폭발 2시간 전 도난된 피자 배달 차량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은 폭발 당시 큰 굉음이 나고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고 증언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마크 헤밀턴 부청장은 "테러로 인한 사망자와 사상자는 없었다"면서 "용의자들은 지역 사회와 지역 기업들에 큰 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차량 근처를 봉쇄하고 조사를 착수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급진 아일랜드 민족주의 무장조직인 '신(新) IRA'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신 IRA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요구하는 무장조직으로 2012년 다수의 반체제 공화주의 인사들이 단결을 외친 이후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북아일랜드의 신·구교도 간 유휴분쟁을 종식한 벨파스트 협정에 반대로 북아일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아일랜드와의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美항공사 승객 250명, 여객기에 14시간 갇혀

미 유나이티드항공 승객 250명이 여객기 출입문 고장으로 14시간 동안 비행기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CNN과 캐나다언론 CBC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 뉴저지 뉴어크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어어라인 UF179 항공편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객기는 대서양 표준시(AST) 기준 오후 9시31분께 탑승객 1명의 의학적 비상상황으로 캐나다 뉴펀들랜드 구스베이 공항에 우회 착륙했다.

문제의 승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후 항공기 출입문 고장으로 추정되는 기계적 결함이 발생해 나머지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구스베이 공항엔 밤새 세관원이 없어 승객들은 여객기에서 하선하지도 못했다. 승객들은 이후 비행기에 갇힌지 14시간 만인 정오께 유나이티드항공이 보낸 대체 여객기로 갈아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14시간의 비행 지연으로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백꽃에 매달린 동박새 21일 오전 경남 가제시 지심도 동백숲길에서 동박새 한 마리가 동백꽃 주위를 날아다니며 꿀을 따고 있다.

## 편의점 범죄 '새벽·女홀로근무' 때 집중 발생

최근 3년 간 70% 새벽·40% 여성 종업원

'편의점 범죄'의 10건 중 7건은 새벽 시간대에, 또 4건은 여성이 일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편의점 관련 사건 269건을 분석한 결과 70%는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다.

또 40%는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새벽 시간에 여성 종업원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 위주로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긴급신고시스템이 없는 편의점은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과 동시에 중점 관리 점포로 지정해 탄력 순찰, 거점 근무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 종업원들이 스마트폰에 '112 긴급 신고 앱'을 설치하게끔 홍보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씨유(CU),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터치 신고시스템'을 설치했고, 다른 편의점 업체에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원터치 신고시스템은 편의점 결제단말기에 112 또는 182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걸 의미한다.

또 지역 사회와 협력해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협업, 중점관리점으로 지정된 편의점 주변에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경찰 뿐만 아니라 자

율 방법대 등 협력 단체들이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 주변을 반복적으로 순찰하게 해 점주와 종업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검거할 수 있는 대응태세도 구축한다.

112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과 긴급 배치 등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연쇄 강도가 발생하는 경우 광역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강도 대부분은 범행 직후 검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의점을 이용하고 종업원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려이는데요... 자태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